

#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

2019. 4.



**한국대학교육협의회**  
**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**

# - 목 차 -

## 《한국대학교육협의회》(공공기관 및 유관기관)

1. 매년 증가하는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..... 1
2. 대학생의 우울증, 자살 등 심리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..... 1
3. 검정고시생에 대한 대체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수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... 2
4. 전북대에서 수시 전형에 임박하여 두 차례 수시 전형을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고, 대교협이 시정권고 및 유예기간 설정 등에서 일관성이 없는 행태를 보였는바, 향후 사전예고제 및 일관성을 유지할 것 ..... 2
5.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..... 3
6. 유학생 수를 늘리는 교육부의 시스템에 따라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둔 유학생 증가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..... 3
7.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및 미성년 공저자가 있는 논문에 대한 미제출 학교에 대한 조치 및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밝혀진 저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..... 4
8. 법적 근거 마련 등 대교협의 입학사정관 회피·제척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..... 5
9. ‘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’의 합의를 기초로 한 시간강사법이 정기회에 통과되면,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편법적인 인건비 절감행태를 감독하는 한편, 재정지원, 대통령령 정비 등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..... 6
10. 현행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인재 기준을 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거나 더 완화하는 것 모두가 지역인재전형을 특별전형으로 한 취지에 반함. 교육부는 전북대와 같은 지역인재전형이 지방대육성법의 취지인지 검토하여 대교협에 안내하고, 대교협은 이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할 것 ..... 6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 내용(14포인트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(14포인트)
	1. 매년 증가하는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(추진중)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고등교육 및 대학운영 관련 각종 개선 과제 발굴</p> <p>나. 향후 추진계획</p> <p>1) 정책건의 및 대책마련 요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부에 정책건의를 통해 대책마련 요청</li> <li>- 재학생 충원율 제고 및 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</li> <li>○ 재학생 충원율을 기관평가인증의 주요 지표로 지속 관리</li> </ul>
	2. 대학생의 우울증, 자살 등 심리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(추진중)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현안 지원을 위한 대책 건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건의(대교협 총회, 18.1)</li> <li>○ 정책토론회 개최</li> <li>-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방안(정책포럼, 18.3)</li> <li>- 대학생의 불안, 이대로 괜찮은가?(국회세미나, 18.5)</li> <li>○ 정책연구 수행</li> <li>-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사업 설계연구(18.4.)</li> </ul> <p>2) 대학 현장과의 연계 노력 지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유 : 국가적 기반으로서의 대학의 정신건강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논의</li> <li>-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참여(토론;</li> </ul>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 내용(14포인트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(14포인트)
		계명대, 18.8) -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참여(발표; 연세대, 18.10) 등 <b>나. 향후 추진계획</b> 1) 정책건의 및 지원사업 요청 지속 ○ 교육부에 건의하여 지원사업 요청 - 대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 - 이를 위해 전문성·독립성을 갖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및 개별 대학의 상담센터 지원사업 추진 등
	3. 검정고시생에 대한 대체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수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(추진중)	<b>가. 시정·처리결과</b> 1)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‘전형 설계·운영 시 출신고교 등 학력(學歷)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됨’을 신설한 바, 대학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검정고시 출신자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전형을 설계할 것을 안내 2) 또한 검정고시 출신자를 포함하여 학생부가 없는 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안내 3)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체서류를 분석 <b>나. 향후 추진계획</b> 1)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공통 양식 또는 표준화 등을 회원대학과 논의 중
	4. 전북대에서 수시 전형	<b>가. 시정·처리결과</b>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 내용(14포인트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(14포인트)
	에 임박하여 두 차례 수시 전형을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고, 대교협이 시정권고 및 유예기간 설정 등에서 일관성이 없는 행태를 보였는 바, 향후 사전 예고제 및 일관성을 유지할 것 (완료)	1) 사전예고제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없도록 지침을 검토, 점검하여 대학에 안내함(19.3)
	5.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(추진중)	<b>가. 시정·처리결과</b> 1) 고등교육 및 대학운영 각종 규제 의견수렴 ○ 고등교육 및 대학운영과 관련한 규제 의견수렴 진행중  <b>나. 향후 추진계획</b> 1) 규제개선 안건 발굴 및 개선 요청 ○ 교육부에 정책건의를 통해 규제 개선 안건 발굴 및 개선 요청 -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의 확대 방안 마련 및 각종 규제 개선 안건 발굴하여 대학의 자율성 신장 도모
	6. 유학생 수를 늘리는 교육부의 시스템에 따라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둔 유학생 증가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(추진중)	<b>가. 시정·처리결과</b> 1)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협의 ○ 고등교육미래위원회를 통한 고등교육 국제화 연구 및 논의 - 대교협 총장세미나, 고등교육미래위원회 국제화 분과 발표 및 논의 (18.6)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 내용(14포인트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(14포인트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교협 총회, 고등교육미래위원회 국제화 분과 연구결과 발표 및 논의(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국제화의 비전과 과제, 19.1)</li> <li>○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안 공유 및 건의</li> <li>- 한국국제교육자협의회 워크숍 참여 (18.8)</li> <li>- 교육국제화역량인증평가를 활용한 유학생 관리 내실화 건의(18.12)</li> </ul> <p><b>나. 향후 추진계획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협의 지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화 관련 협의체 협력 강화</li> <li>- 유학생 관리 내실화를 위해 대학내 국제화 관련 처장, 실무자 협의회 등과의 업무공유를 위한 협력 강화</li> </ul> </li> </ol>
	<p>7.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및 미성년 공저자가 있는 논문에 대한 미제출 학교에 대한 조치 및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밝혀진 저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(추진중)</p>	<p><b>가. 시정·처리결과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연구관리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의</li> <li>- 사전예방, 사후조치, 인프라 강화 등 연구 윤리 및 관리 관련 업무협의 (교육부, 19.3)</li> <li>- 총장, 산단장 등 책임자의 연구윤리 중요성 인식 강화를 위한 노력</li> <li>-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 관련 항목 추가 검토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교협 연수원, 연구산학협력과정</li> </ul> </li> </ol>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 내용(14포인트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(14포인트)
		<p>직무연수(18.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교협 연수원, 신입교수과정(18.7, 18.12)</li> </ul> <p><b>나. 향후 추진계획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공유 노력 지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노력</li> <li>- 대교협 연수원을 통한 연구윤리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설 추진</li> <li>- 연구 규정 및 운영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추진 등</li> </ul> </li> </ol>
	<p>8. 법적 근거 마련 등 대교협의 입학사정관 회피·제척 시스템을 활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(추진중)</p>	<p><b>가. 시정·처리결과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* 등 내용을 보완하여 「대학입학전형 회피·제척 가이드라인」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대학(18.6) 및 회원대학에 배포(18.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박경미 의원(의안번호 9177, '17.9.7.) 및 전재수 의원(의안번호 9237, '17.9.11.)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</li> </ul> </li> <li>2) 「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」부터 입학전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피·제척을 운영하도록 반영</li> <li>3) 「고등교육법」 일부개정 법률안에 입학사정관 배제 규정(제34조의2(입학사정관 등) 제③,④항 신설)을 마</li> </ol>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 내용(14포인트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(14포인트)
		<p>련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(19.4)</p> <p><b>나. 향후 추진계획</b></p> <p>1)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관련 「고등교육법」 일부개정 및 「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」에 따라, 입학사정관 회피·제척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</p>
	<p>9. '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'의 합의를 기초로 한 시간강사법이 정기회에 통과되면,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편법적인 인건비 절감행태를 감독하는 한편, 재정지원, 대통령령 정비 등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(추진중)</p>	<p><b>가. 시정·처리결과</b></p> <p>1) 강사법 관련 업무협의 지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제출 (18.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선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재정지원이 요청됨(전문대 공동)</li> </ul> </li> <li>○ 강사법 관련 협의 지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협의(19.1.~) : 대학, 전문대학, 강사단체 등</li> <li>-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TF 협의(19.2.~) : 대학, 전문대학, 강사단체, 대학원생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나. 향후 추진계획</b></p> <p>1) 강사법 관련 협의 지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강사법 관련 협의 지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학 공유(19.4) : 대학, 전문대학, 강사단체, 대학원생 등 협의 노력 지속</li> </ul> </li> </ul>
	<p>10. 현행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인재 기준을 '고등학교를 졸업한 사</p>	<p><b>가. 시정·처리결과</b></p> <p>1) 지역인재전형의 자격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것이 지방대육성법 취지에</p>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 내용(14포인트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(14포인트)
	<p>람'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거나 더 완화하는 것 모두가 지역인재전형을 특별전형으로 한 취지에 반함. 교육부는 전북대와 같은 지역인재전형이 지방대육성법의 취지인지 검토하여 대교협에 안내하고, 대교협은 이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할 것 (추진중)</p>	<p>부합하는 것인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</p> <p><b>나. 향후 추진계획</b></p> <p>1) 교육부의 지방대육성법 유권해석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</p>